

한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독도인식 경향*

심 정 보**

Trends in Dokdo Perceptions among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Jeongbo Shim**

요약: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08년 이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여 한국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인식의 경향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모든 학생들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학교 수업과 미디어의 영향이다. 둘째, 독도의 위치, 섬의 구성, 형상 이미지 등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셋째,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독도 이슈가 미래의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한일 정부의 논의를, 중등학생은 독도교육의 충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요어: 초중등학교 학생, 독도교육, 영토, 부정적 영향, 일본의 논리

Abstract: Japan established ‘Takeshima Day’ in 2005, and since 2008, it has describ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which has led to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In response, Korea ha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schools to protect Dokd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Dokdo perceptions of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who have systematically received Dokdo education and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Korean students recognize Dokdo as Korean territory, which is due to the influence of school classes and the media. Seco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rrectly recognize Dokdo’s location, island composition, and shape images increases as they go up in school. Third, mos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predicted that the Dokdo issue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future bilateral relations. In terms of the direction of a desirable solu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lieved that discuss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were important, while secondary school students believed that Dokdo education was important.

Key word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Dokdo education, territory, negative effects, Japanese logic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A5C2A0309035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ktxgut@naver.com

I. 머리말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층 강력하고 집요하게 전개되어 한국 정부와 한국인으로부터 정치적 갈등과 반일감정을 초래했다. 그 계기는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 100년을 맞아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게다가 2008년 7월에는 문부과학성이 한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지리적 분야에 독도(竹島)를 명기했다. 이후 일본의 개정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은 독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수차례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내용 등이 기술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기술하고, 나아가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왜곡하여 기술하도록 감정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교육부는 영토 수호의 일환으로 독도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예컨대 교육부는 2011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독도교육을 범교과학습의 주제로 선정했으며,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지리 및 역사 등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확대했다. 지방 정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학교 독도부교재 편찬, 독도교육주간 운영, 독도의 날 행사, 독도탐방 추진, 독도체험관 건립 및 운영¹⁾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를 지켜야 할 영토로 인식하도록 했다.

연구자들의 독도교육에 대한 논문도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했다.²⁾ 주요 내용은 양국 정부의 독도교육 정책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 연구, 독도수업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타 독도교육의 실제, 현황, 문제점, 과제와 전망, 개선 또는 발전 방향 모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이들 독도교육 연구는 양국의 독도교육을 비교하거나 일본의 독도교육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국민, 양국 학생들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5년 2월 세계일보가 서울대생과 도쿄대생을 중심으로 독도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현일 외, 2005), 2012년 4월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가 시마네현·오이타현·히로시마현 주민과 리쓰메이칸(立命館) 아시아태평양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김동환, 2013). 그리고 후카미 사토시(深見聰, 2016·2018)가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독도 이외에 이웃 국가와 영토갈등 상태에 있는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포함되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학교 현장에서 독도를 가르칠 한일 사회과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인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심정보, 2020).

그러나 대학교 이전의 인지 발달이 왕성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독도인식의 경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21세기 초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강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독도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형성된 독도인식의 개략적인 경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초중고 학교급별 독도인식의 경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독도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독도교육의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의 독도인식 경향을 연구한다면, 양국의 독도교육 비교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우선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과 교과서는 초중고학생들의 독도인식 형성에 공식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은 초중고학생들의 독도인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의 문항은 독도교육의 기초·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필자가 개발했으며, 주로 지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학년말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하순에 실시되었고, 참가 학생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학년 38명, 초등학교 6학년 44명, 중학교 3학년 44명, 고등학교 2학년 60명으로 총 186명(남 88명, 여 98)이다. 설문지의 문항 검토는 전문가 1인, 설문조사의 답변 분석 및 해석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 문항이 과반 이상이며, 회수율은 100%였다. 설문지는 총 15개 문항이며, 이들은 학생들의 독도인식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과거는 독도를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현재는 독도의 기초·기본이 되는 내용을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독도 이슈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을 위한 방향 모색 등이다.

II.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설문조사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들은 대부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독도교육을 받았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부턴 접진적으로 실시된다.³⁾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협조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당해 연도에 사용했던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들이 학습한 독도 내용을 살펴본다.

1.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는 5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5학년의 독도는 『사회 5-1』 교과서의 중단원 「1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서 독도에 대한 기초·기본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김현섭 등, 2024a). 주요 내용은 4극, 우리나라 영해, 국토사랑 독도탐방, 독도의 소중함 등을 이해하고 느끼도록 기술되었다. 이미지 자료는 독도전경과 독도탐방 사진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전도,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 지도, 영해지도, 산맥과 하천도, 지방구분도, 전통적인 지역구분도, 행정구역도, 도청소재지 지도, 국토사랑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통해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와 모습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지도에서 색칠하기 활동 등을 거치면서 독도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했다. 게다가 지도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은 어느 지방에 속하는지 말해보고, 독도가 속하는 행정구역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가 기술되었다.

6학년의 독도는 『사회 6-2』 교과서의 중단원 「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서 독도는 어떤 곳이며, 독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뤘다(김현섭 등, 2024b). 독도 내용의 분량은 초중고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다. 주요 내용은 소중한 우리나라 영토, 독도의 위치와 거리, 가장 동쪽의 섬, 행정구역, 중요성, 역사적 자료, 독도의 여러 명칭, 수산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화산섬, 섬의 구성(동도와 서도, 89개의 작은 섬), 동식물, 관광자

원, 독도 관련 인물 등이다. 이미지 자료는 역사적 증거로서 동서양의 옛 지도와 문헌, 독도의 지형, 독도의 동식물,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안용복, 심홍택, 최종덕, 독도 경비대원) 등이 다수 수록되었다. 이들 독도 관련 내용과 이미지는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와 한국지리 교과서에 계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내용의 계열성은 약하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는 우리나라의 위치 속에서 독도의 위치 파악, 영역으로서의 독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국토의 일부로서 독도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반면 6학년 사회는 독도의 지리적 특징, 독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이해,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의 노력을 알고 독도를 지키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지향했다.

2. 중등학교의 역사와 지리

중학교에서 독도는 『사회 2』와 『역사 2』 교과서에 기술되었다. 먼저 『사회 2』의 독도는 중단원 「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1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김진수 등, 2022). 주요 내용은 「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과 해결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그리고 「1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에서는 통상기선, 우리나라 4극, 지리적 특색,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조경수역, 메탄 하이드레이트, 환경 및 생태적 가치, 천연보호구역 등이다. 이미지 자료는 독도전경, 팽이갈매기, 4극지도, 독도의 위치, 배타적어업수역, 독도경비대, 동쪽 땅갈 곳돌, 우체통, 해국, 팽이밥, 고문헌과 고지도, 인물(이사부, 안용복, 심홍택, 홍순철) 등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국토공간이라는 것, 즉 영역으로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했다. 반면 중학교 『역사 2』 교과서의 독도는 하나의 단원이 아닌, 부록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가 다뤄졌다(이병인 등, 2020). 주요 내용은 일본이 독도를 러일전쟁 중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 현재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자료로서 삼국시대의 삼국사기, 고려시대의 고려사,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의 울릉도와 독도가 제시되었다. 이미지 자료는 독도전경을 비롯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 삼국점양지도(1875), 태정관 지령(1877) 등이 설명과 함께 수록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한국사』와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술되었다. 필수과목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는 중단원 「2 독도와 간도」에서 간단히 다뤄졌다(한철호 등, 2021). 주요 내용은 독도를 수호하려고 노력했으나 러일전쟁 중에 일본에 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 강점의 서막이었다고 기술되었다. 이미지 자료는 독도전경을 비롯하여 독도의 날 홍보 포스터, 태정관 지령문과 기죽도약도, 그리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부록에서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독도경비대원, SCAPIN 제677호 부속 지도(1946), 일본영역참고도(1951)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일반선택과목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는 중단원 「3 소중한 우리 영토」에서 다뤄졌다(유성종 등, 2022). 주요 내용은 독도의 형성 시기, 화산섬, 해양성 기후,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로서 만기요람(1808),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리고 이미지 자료는 독도전경을 비롯하여 독도의 위치 지도, 독도의 구성 지도, 팔도총도, 삼국점양지도, 독도 주변의 해저 입체 지형도 등이 수록되었다.

III. 학교급별 독도인식의 경향

한국의 초중고생들에게 형성된 독도인식의 경향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과거의 독도인식은 유치원 시절부터 여러 유형의 수업과 활동, 뉴스와 각종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 및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현재의 독도인식은 위치와 행정구역, 섬의 구성과 형상, 심상 이미지, 독도영유권에 대한 입장 등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독도인식은 독도라는 섬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도 이슈의 해결 방향 등을 전망하는 내용이다.

1. 독도인식의 과정

1) 시기와 정보원

한국의 초중고생들에게 독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와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처음 인상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했다. 그 결과 초중고생들은 독도의 존재를 100%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독도를 처음 기억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은 38명 가운데 24명

(63.2%), 초등학교 6학년은 44명 가운데 38명(86.4%), 중학교 3학년은 44명 가운데 40명(90.9%), 고등학교 2학년은 60명 가운데 59명(98.3%)이 응답했다.

독도를 처음 인상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초중고생 모두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역시 독도교육은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으며, 그 외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수를 보였다(표 1).

독도를 알게 된 정보원은 초중등학교 전체에 걸쳐 학교 수업, 미디어, 부모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초등학교 3학년은 이들 이외에 기타(29.2%)로 독도노래, 만화책, 독립기념관 방문, 독도탐방을 언급했지만, 이후의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교 수업은 초중고를 일관하여 압도적이며, 고등학교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강치만화영상, 독도영상, 유튜브의 독도노래,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⁴⁾ 독도의 날 행사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부모는 초등학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편이다. 미디어도 초중고 전체에 걸쳐 20~30% 내외로 지대한

표 1. 독도를 처음 인상적으로 인식한 시기

시기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3	12.5	87.5	-	-
초6	9.8	90.2	-	-
중3	5.0	92.5	2.5	-
고2	6.8	81.3	6.8	5.1

자료: 설문조사

표 2. 독도인식의 정보원

정보원 학교	학교수업(%)	미디어(%)	부모(%)	기타(%)
초3	45.8	20.8	4.2	29.2
초6	59.1	31.8	9.1	-
중3	70.0	25.0	5.0	-
고2	79.7	18.6	1.7	-

자료: 설문조사

영향을 미치며, 주요 종류는 뉴스, TV 프로그램, 유튜브, 인터넷 자료 등이다. 뉴스는 서울의 지하철역에 설치한 독도조형물을 제거한 것³⁾·독도의 날의 다양한 기념행사, TV 프로그램은 독도 생태계의 파괴·연예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설명하는 장면·독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모습·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 유튜브는 독도노래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2) 학교 내외에서의 수업과 활동 및 체험

한국의 초중고생들이 경험한 독도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를 조사했다. 첫째, 여러분은 현재까지 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언제, 무슨 과목, 어떤 내용인가를 적어 보도록 했다. 둘째,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학교 내외에서 활동이나 체험 등을 통해 독도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가의 유무, 그리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기술하도록 했다. 이들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인상적인 독도 수업의 내용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28명(73.6%), 초등학교 6학년 41명(93.2%), 중학교 3학년 43명(97.7%), 고등학교 2학년 59명(98.3%)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의 창체(89.3%), 국어(7.1%), 수학(3.6%) 과목을 들었다. 창체는 독도의 대표 동식물, 독도의 강치 이야기, 독도 그리기와 만들기들, 국어는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내용 등이다. 그 외에 20%의 학생들은 수업과는 별도로 10월 25일 독도의 날 급식에 나온 독도케이크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대부분 6학년의 창체(63.4%), 사회(34.1%), 수학(2.4%) 과목이라고 말했다. 창체는 독도키링 만들기, 독도저금통 만들기,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에서 독도 체험과 설명 듣기를, 사회는 독도기념품 만들기, 독도 그리기, 안용복의 행적, 일본의 독도침탈, 일본 정부와 일본인이 인정한 한국령 독도 등이다. 중학교 3학년은 여전히 초등학교의 기억이 약 25% 남아 있으며, 인상적인 과목은 사회(83.7%), 한문(4.7%), 수학(2.3%) 등이며, 내용은 독도형상 그리기, 독도지도 그리기, 독도퀴즈, 강치 멸종, 애니메이션 시청, 일본의 주장(우김), 일본과의 대립 등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기억과 함께 한국사,

한국지리가 주요 과목이며, 그 외에 미술, 독서가 소수 나왔다. 한국사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 찾아보기, 일본인 친구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편지쓰기를, 한국지리는 독도의 지형과 기후, 자원, 통상기선, 지역조사 등이며, 그 외에 강치 캐릭터, 독도 플래시몹,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하기를 들었다.

둘째, 학교 수업 이외의 영역에서 독도를 새롭게 알거나 경험한 내용이다. 무응답자와 없음을 제외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28명(73.6%), 초등학교 6학년 25명(56.8%), 중학교 3학년 11명(25%), 고등학교 2학년 30명(50.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학교 급식의 독도케이크와 독도마카롱, 독도체험관 방문 등이며, 초등학교 6학년은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에서 VR 체험과 강의, 독도체험관 방문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학교 3학년은 독도의 날 행사, 독도 관련 유튜브 시청 등이며, 고등학교 2학년은 독도의 날 행사, 독도 동아리, 독도 사진전, 독도경비대 및 일본인에게 편지쓰기, 독도 특강, 독도체험관 방문, 독도여행 등이다.

2. 독도의 위치와 심상 이미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어린이집) 단계부터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로부터 배우거나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본격적으로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 지리, 역사 과목의 교과서에 독도가 계속적·계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학생들은 정규 과목의 수업 이외에도 독도의 날 행사, 독도체험관 방문, SNS 등을 통해 독도를 알아간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초중고생들에게 형성된 독도인식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도의 행정구역, 위치, 섬의 구성과 이미지 등을 조사했다. 이들 내용은 독도를 계속적·계열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기초·기본이 되는 지식이다.

1) 독도의 행정구역

먼저 독도가 속하는 행정구역에 대한 학교급별 학생들의 인식 경향이다. 독도의 행정구역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5-1』 교과서에 대한민국전도 및 독도전경 사진과

함께 “동쪽 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김현섭 등, 2024a). 독도를 대한민국 4극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영역감을 갖도록 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독도리의 행정구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경향은 초등학교 3학년 2.6%(1명), 초등학교 6학년 11.4%(5명), 중학교 3학년 29.5%(13명),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88.3%(53명)로 나왔다(그림 1).

학생들의 오답 유형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와 울릉군 가운데 하나만 올바르게 답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인식에 다양한 혼란이 보인다. 즉 초등학교 3학년은 경상북도 ()군 31.6%(12명), 울릉도 ()군이 26.3%(10명)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울릉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군, 울릉도 동남군, 무응답 등이다. 초등학교 6학년은 울릉도 ()군 31.8%(14명), 울릉도 울릉군 9.1%(4명), 울릉도 독도군 6.8%(3명)이며, 그 외에 울릉도 동남군, 강원도 울릉군, 경상도 울릉군, 무응답 등이다. 중학교 3학년은 경상북도 ()군 9.1%(4명), 강원도 울릉군 6.8%(3명)이며, 그 외에 ()도 울릉군, 울릉도 울릉군, 경상북도 독도군, 강원도 독도군, 경상도 울릉군, 강원도 울릉군, 경상남도 울릉군, 무응답 등의 유형이 나왔다.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은 오답이 크게 줄어 경상남도 울릉군, 강원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군, 울릉군 울릉군, 무응답 등이 소수 나왔다. 이처럼 한국에서 독도의 행정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점차 나아

지며,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독도의 위치

독도교육 또는 독도를 말할 때에 독도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기초·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독도의 위치는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고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며, 나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역사, 지리 교과서에서도 수록된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생들의 독도 위치 인식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도에 자신들의 거주지역과 함께 독도를 ○로 표시하고, 각각의 지명을 표기하도록 했다(그림 2).

그 결과 정답률은 자신들의 거주지 위치는 초등학교 3학년 31.6%(12명), 초등학교 6학년 52.3%(23명), 중학교 3학년 63.6%(28명), 고등학교 2학년 68.3%(51명)으로 나타났다. 지도에 오답으로 표시한 지역은 경기도, 충남해안, 남해안, 북한, 일본, 중국 등 다양하며, 이들은 학교급의 진전에 따라 줄어든다. 반면 독도의 위치는 초등학교 3학년 34.2%(13명), 초등학교 6학년 54.5%(24명), 중학교 3학년 72.7%(32명), 고등학교 2학년 85.0%(51명)을 보였다(그림 3). 지도에 오답으로 표시한 지역은 제주도, 쓰시마, 오키제도, 규슈, 일본 서해안 등이며, 이들 오답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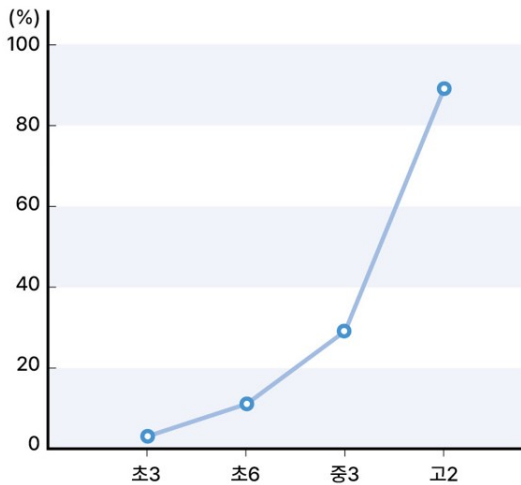


그림 1. 독도리의 행정구역 인식
자료: 설문조사



그림 2. 설문조사에 사용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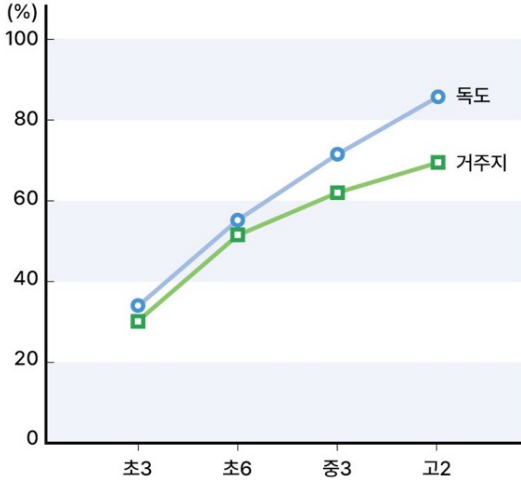


그림 3. 거주지 및 독도의 위치 인식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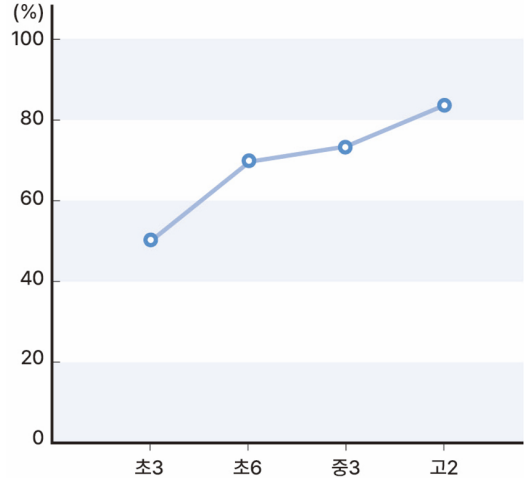


그림 4. 독도라는 섬의 구성에 대한 인식
자료: 설문조사

이와 같이 지도에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독도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걸쳐 자신들의 거주지보다는 독도의 위치에 대한 정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초중고에 걸쳐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학습하고, 미디어 등을 통해 빈번하게 독도를 접할 기회가 많으며, 거주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독도를 구성하는 섬의 숫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섬 명칭에는 크고 작은 여러 도서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국토지리정보원(2009)에 따르면, 독도는 서도와 동도라는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부속도서를 합치면 총 9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6-2』 교과서에 독도전경 사진과 함께 “독도는 화산 폭발로 솟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두 개의 큰 섬인 동도, 서도와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김현섭 등, 2024b). 독도는 총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중고생들의 답변은 다양하게 나왔다.

정답을 2개의 섬 또는 91개의 섬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정답률은 초등학교 3학년 52.6%(20명), 초등학교 6학년 70.5%(31명), 중학교 3학년 75.0%(33명), 고등학교 2

학년 83.3%(50명)로 나타났다(그림 4). 초등학교 학생들은 독도를 고정된 2개의 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은 섬의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예컨대 중학생은 2개 큰 섬과 매우 많은 작은 섬이라는 표현을, 고등학생은 2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 큰 섬 2개+α, 크게 2개+89개, 91개의 섬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의 정답을 유연하게 제시했다.

한편 독도가 1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었다는 답변은 초등학교 3학년이 18.4%(7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9.1%(4명)로 감소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면 1개의 큰 섬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3개, 4개, 82개, 89개 등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소수 나왔다.

4) 독도의 심상 이미지

독도의 심상 이미지는 독도에 대한 의식으로 지리적 사상, 지리적 내용에 근거한 학생들의 심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심적 반응은 지식, 지각, 인지, 이해, 사고, 능력, 이미지, 흥미관심, 가치관, 태도, 감정 등 의식이나 심적인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山口幸男, 2002). 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이 있다. 의식은 정의적 측면이, 인식은 지적 측면이 강하지만, 단순히 구별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리교육에서 심상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첫째는 학생들의 학습에 알맞은 상태(readiness)를 파악하기 위한 것, 둘째는 수업의 전개에서 학생의 지리적인 심리적 반응의 특성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지도의 방향을 탐색하는 임상적인 것, 셋째는 교육과정이나 학습지도 등의 타당성을 음미하고, 교육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山口幸男, 2002).

독도에 대한 인식·의식의 발달에는 학교교육, 국가 및 사회, 미디어, 학습자의 성장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초중고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의식의 조사 및 연구는 독도교육 연구의 기초·기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정의적 측면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형성된 독도의 심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의 개선과 함께 독도에 대한 흥미·관심의 파악, 나아가 영토의식의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초중등학교에서 동도와 서도가 포함된 독도전경 이미지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5-1』 교과서를 비롯하여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도에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⁶⁾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형성된 독도의 심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도록 했다. 그 결과 초중고 학생들은 모두 독도의 모습을 그렸지만, 학교 급에 따라 수준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학생들이 마음속에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독도를 그리는가에도 따라 동도와 서도의 위치는 달라진다(그림 5).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극동에 위치한 독도는 동해상에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요 섬과 그 주변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었다. 서도는 동도보다 면적이 넓고 해발고도가 높다. 독도는 화산지형이지만, 오랫동안 바다와 비바람의 영향으로 파식대·시스택·해식애·해식동·타포니 등의 지형이 발달했다. 동도와 서도는 대부분

수준 학교	하급	중급	상급
초3			
초6			
중3			
고2			

그림 5. 초중고생이 그린 독도의 이미지

자료: 설문조사

바위로 이루어져 토양층이 없거나 얇으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식생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사람들의 활동으로 서도는 주민숙소와 정사까지 계단이 조성되었으며, 동도는 독도경비대와 독도 등대 등의 건물과 물건을 운반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

초중고생들이 그린 독도의 심상 이미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중급·상급으로 분류했는데, 그 기준은 2개의 섬과 형상의 정확성에 두었다. 대체로 중급과 상급은 독도가 2개의 섬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표현되어 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급은 독도의 모습을 비교적 현실과 가깝게 재현한 경우이다. 반면 수준이 가장 낮은 하급은 1개의 섬으로 섬의 형상이 단순하고 낙서처럼 조잡해서 독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독도의 심상 이미지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낮으며, 6학년에 이르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급과 상급의 비율이 70%를 넘게 된다. 이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수준이 다소 낮아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단계가 되면 다시 높아져 중급과 상급은 70%, 하급은 30% 정도가 된다(표 3). 설문조사를 실시한 현장 교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단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이나 각종 행사에서 독도를 그리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5와 같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에게 형성된 독도의 심상 이미지 표현은 단순함에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구체적이고 정교한 모습으로 바뀐다. 예컨대 동도와 서도의 해발고도 차이, 독도의 식생이나 여러 지형의 표현 등이 진전되었다. 그 외에도 독도와 그 주변에는 갈매기, 태극기, 태양, 물고기, 독도새우, 강치, 식생, 독도 등대, 경비대 건물과 경비대원, 선착장, 주민숙소 등이 그

려졌다. 이들 그림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1.1개, 초등학교 6학년 1.2개, 중학교 3학년 1.1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0.8개를 나타내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이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생들이 독도의 심상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그린 캐릭터는 외로운 섬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갈매기, 애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태극기이며, 이들이 모든 초중고에 걸쳐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태양이 약 10%를 보였다. 초중고 학생들은 그림 이외에 독도는 우리 땅, KOREA, 행복한 독도 등의 글귀도 소수 기재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 독도는 모든 한국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수호의 대상이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5) 독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설문조사에 협조한 한국의 초중고생들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정치적·외교적 마찰이 절정에 달했던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8년 7월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지리적 분야에 독도(竹島)가 명기되는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 학교에서 독도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세대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여러 언론과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가 다양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초중고생들에게 독도에 대해서 떠오르는 기억이나 생각(이미지) 등을 복수로 자유롭게 적어 보도록 했다.

모든 초중고생들은 독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미지)을 표현했다. 1인당 평균 초등학교 3학년 1.5개, 초등학교 6학년 2.5개, 중학교 3학년 1.7개, 고등학교 2학년 1.4개를 제시했다. 초중고생들에게 독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미지)의 종류는 각 학교급별로 20개 내외였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초중고생들에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땅, 섬, 강치, 천연자원 등이며, 학교급에 따라 변화와 차이를 보였다(그림 6). 특히 공교육의 종착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미지가 전체의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 독도의 심상 이미지 경향

학교 \ 수준	상급(%)	중급(%)	하급(%)
초3	15.8	21.1	63.1
초6	29.5	40.9	29.5
중3	11.4	29.5	59.1
고2	8.3	63.3	30.3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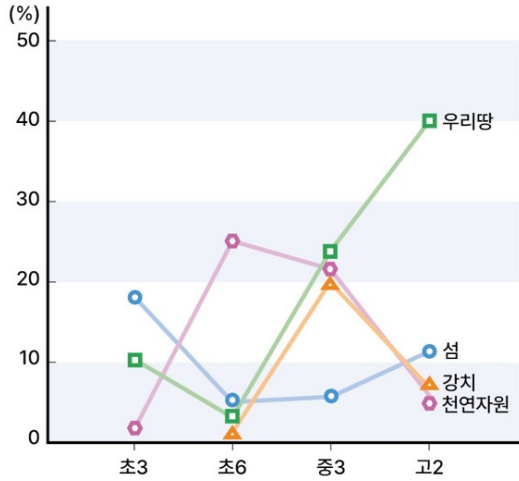


그림 6. 독도의 연상 이미지
자료: 설문조사

초등학교 3학년은 총 응답 가운데 섬 19.3%, 바다 12.3%, 우리 땅 10.5%, 일본 10.5%, 바위 8.8%이며, 그 외에 강치, 갈매기, 새, 아름답다, 억지주장(우깅) 등이 소수 나왔다. 섬에 대해서는 단순히 섬이라는 답변 이외에 두 개의 섬, 아름다운 섬, 여러 동식물이 있는 섬, 외딴 섬, 우리나라 섬 등 표현이 다양했다. 학생들은 우리 땅과 일본은 단순히 일본이 생각나는 것 이외에 침범이나 우깅 등과 상호 관련지었다. 대체로 초등학교 3학년 단계는 독도의 자연 환경과 여기에 서식하는 동식물, 우리 땅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기라고 할 있다. 반면 다소 비중 있게 나왔던 바다, 일본은 상급 학년 및 학교로 갈수록 줄어들거나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은 강치 25.5%, 바위 18.2%, 갈매기 14.5%, 섬 5.5%, 영토분쟁 4.5%, 우리 땅 3.6%, 바다 3.6%, 자연 3.6% 순이며, 그 외에 독도노래, 독도새우, 독도경비대, 태극기, 황금어장, 울릉도, 자원 등이 소수 나왔다. 초등 교사에 따르면, 6학년 단계에서 강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학교 현장에서 멸종된 독도 강치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 강치그림 그리기, 강치기념품 만들기 등 강치를 소재로 독도교육을 적극 실시한 결과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보이는 바위라는 단순한 이미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코끼리바위·한반도바위·삼형제바위·춧대바위 등 여러 유형의 고유명사 바위 명칭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사회 6-2』 교과서에서 코끼리바위,

한반도바위 등을 다룬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땅이라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왔지만, 영토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도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던 바다와 바위라는 이미지는 중등학교에 이르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학교 3학년은 우리 땅 24.3%, 강치 22.9%, 메탄하이드레이트와 천연자원 20.3%, 섬 6.8% 순이며, 그 외에 독도노래, 독도새우, 독도경비대, 화산, 아름다움, 갈매기, 안용복 등이 나왔다. 이 단계의 특징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의식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새롭게 독도 주변 바다에 천연자원의 매장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므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강치에 대한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25.5%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땅이라는 응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소유물, 우리영토, 그리고 일본이 탐하는 섬, 우기는 섬, 지켜야 하는 섬 등의 글귀와 함께 표현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우리 땅 40.7%, 섬 12.8%, 천연자원 6.9%, 강치 6.7% 순이며, 그 외에 바다, 통상기선, 일본, 천연기념물, 갈매기, 바위, 청정구역, 동식물, 독도새우, 독도경비대, 역사왜곡, 울릉도, 우리나라 최후단 등 다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등학교 이전의 단계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던 초등학교 3학년의 섬과 6학년의 강치,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메탄하이드레이트와 천연자원은 점차 학년과 학교의 진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우리 땅에 대해서는 엄연한, 일본에 빼앗겼던, 되찾은,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그냥 우리 땅 등의 표현과 함께 언급하여 당위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독도를 알아가면서 나름대로 독도영유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보도록 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들은 독도영유권에 대해 초등학교 3학년 100%, 초등학교 6학년 97.7%, 중학교 3학년 100%, 고등학교 2학년 100%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1명의 학생이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로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역사적 증거 자료와 고대 이래의 오랜 옛날부터라는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은 당위성 18.9%, 독도노래 13.5%, 역사성(고유성) 10.8%, 역사적 증거 8.1%, 지리적 인접성 8.1%, 교육 8.1%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당위성은 이유 없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독도노래는 음악을 통해 형성된 것, 역사성은 신라장군 이사부에 의해 울릉제도가 신라에 편입되어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 역사적 증거는 옛 지도와 문헌이 증명하는 것, 지리적 인접성은 울릉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권이 되었다는 것, 교육은 수업이나 체험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은 역사적 증거 43.5%, 역사성 13.0%, 지리적 인접성 6.5%, 당위성 6.5%, 일본의 인정 6.5%, 교육 4.3%, 독도노래 2.2% 순이며, 그 외에 일본인이 갈 수 없는 땅, 한국의 실효적 지배 등이 나왔다.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한국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지도가 필요하다.⁷⁾ 초등학교 고학년의 특징은 중학년에 비해 당위성과 독도노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역사적 증거와 역사성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그 외에 소수의 답변으로 일본 정부와 학자들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응답은 주목할 만하다.

중학교 3학년은 역사적 증거 47.6%, 지리적 인접성 16.7%, 역사성 11.9%, 교육 9.5%, 일본의 인정 7.1%, 당위성 4.8% 순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역사적 증거 48.3%, 교육 16.7%, 당위성 13.3%, 교육 16.7%, 역사성 10.0%, 지리적 인접성 8.3%, 독도노래 1.7%로 나타났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로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역사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회,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와 한국지리 교과서의 내용을 독도

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한국, 일본, 서양의 역사적 자료를 계속적·계열적으로 구성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래 한일 관계의 전망

1) 양국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동해 남서쪽에 위치한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초중고생들은 거의 100% 가까이 이 섬을 한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의 차가 있지만, 2022년 여론조사에서 독도영유의 정당성은 79.3%로 높은 편이다(內閣府政府広報室, 2023). 독도영유권은 양국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중고생들에게 향후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총 38명 가운데 78.9%(30명)가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무응답 15.8%(6명), 모르겠다 5.3%(2명)가 나왔다. 응답자의 83.3%(25명)가 부정적 입장으로 그 내용은 양국 사이가 멀어지거나 안 좋아질 것 같다, 싸울 것 같다, 일본이 계속 우길 것 같다, 일본이 앗아갈 것 같다 등이다. 반면 나머지 16.7%(5명)는 반씩 나뉘어질 것 같다,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총 44명 가운데 97.7%(43명)가 응답했으며, 무응답은 2.3%(1명)이었다. 응답자의 67.4%(29명)가 부정적 입장으로 양국 사이에 불편함, 싸움, 갈등, 영토 분쟁, 전쟁, 불화, 견제 등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나머지 32.6%(14명)는 정치적으로 마찰이 있겠지만 민간인들 사이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상황마다 다를 것 같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의 상황을 반복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3학년은 총 44명 가운데 97.7%(43명)가 응답했으며, 무응답은 2.3%(1명)였다. 응답자의 88.4%(38명)가 부정적 입장으로 양국의 관계 악화, 악영향, 악감정, 악의 관계, 독도 논쟁의 증가, 싸움·다툼의 빈번, 갈등, 외교적 마찰, 우김 등의 용어가 나왔는데, 특히 악과 우김이라는

표현이 많은 편이다. 소수의 견해로서 부정적 영향의 근원은 독도 주변의 천연자원 매장에 주목했다. 반면 나머지 11.6%(5명)는 일본이 인정을 할 것 같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서로 포기하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총 60명 가운데 91.7%(55명)이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무응답 5.0%(3명), 모르겠다 3.3%(2명)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78.2%(43명)가 부정적 입장으로 중학교와 유사하게 분쟁지역, 영토문제, 갈등, 대립, 다툼, 분노유발제, 우김, 악영향, 악감정 등으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전망했다. 반면 나머지 21.8%(12명)는 다수가 원래부터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현상유지를 한다면 별다른 영향이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양국 관계의 전망은 부정적 견해가 강하며, 그 내용도 학교급별로 유사함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단계부터 부정적 입장이 높았다가 6학년 단계에서 낮아졌으며, 다시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절정에 달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중학년의 맹목적인 독도교육,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의 미래지향적 국제 관계를 고려한 독도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2)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일 간에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근대에는 안용복이 활동했던 17세기 말에 울릉도 논쟁이 발생했지만,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여러 조사를 통해 울릉도를 조선

의 영유로 인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해방 이후 독도가 양국 사이에 정치적·외교적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분쟁화를 시도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그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을 단호하게 거부했으며, 독도에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독도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초중고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94.7%(36명), 초등학교 6학년 88.6%(39명), 중학교 3학년 97.7%(43명), 고등학교 2학년 95.0%(57명)가 응답했다. 독도 이슈의 해결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5개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기타는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복수 선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 46개(1인당 1.3개), 초등학교 6학년 51개(1인당 1.3개), 중학교 3학년 57개(1인당 1.3개), 고등학교 2학년 78개(1인당 1.4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기타는 초등학교 3학년 2명(2개), 초등학교 6학년 0명(0건), 중학교 3학년 20명(20건), 고등학교 2학년 10명(10건)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들 조사 내용은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초중고생들이 생각하는 독도 이슈의 해결 방향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사이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보인다(표 4).

복수의 선택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다음은 군사적 방법이 6학년 단계까지 다소 높은 비중

표 4. 독도 이슈의 해결 방향

No	내 용	초3(%)	초6(%)	중3(%)	고2(%)
1	한일 정부(정상 또는 외교부)의 논의	41.3	35.3	26.3	29.5
2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	10.9	3.9	12.3	5.1
3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23.9	29.4	26.3	32.1
4	군사적 방법	6.5	13.7	12.3	2.6
5	독도 교육의 충실	17.4	17.6	22.8	30.8
6	기타 의견	5.3	-	45.5	16.7

자료: 설문조사

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에는 이들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경향이다. 반면 중등학교 학생들은 독도 교육의 충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학생들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일본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기타 의견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5.3%(2명)의 학생이 독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이 우기는 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학교 3학년은 45.5%(20명)의 학생이 역사적 토론과 캠페인, 역사적 사실로 주장이나 합리적 설득,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해외에 홍보 및 시위, 챗 GPT에게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질문, 독도의 날 행사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16.7%(10명)의 학생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의 지속적 개발과 외국인을 위한 번역 자료의 배포와 홍보, 한국의 국력을 키워 영향력 행사, 독도에 주민 이주의 확대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등이 나왔다.

이상에서 해결 방향의 인식에 나타나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공통적 특성은 독도 이슈의 해결책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의 비중이 높다는 것,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독도교육 논리인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한국 정부가 1954년 이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독도 이슈의 해결은 양국 정부(정상) 간에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도 교육의 충실, 한일 민간단체의 교류와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의 영토이므로 구태여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열정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자칫하면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은 일본의 논리에 밀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보다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옛 문헌이나 지도 등을 바탕으로 만든 영문 문헌이나 홍보자료를 해외 각국의 정부 기관과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IV. 맺음말

21세기 들어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는 후속 세대들에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시키고 되찾는다는 목적으로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게다가 2008년부터 문부과학성은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명기했으며,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도록 검정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교육부는 대응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록 20세기 초에 일본의 독도 도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독도인식의 경향을 파악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먼저 현재 학생들의 독도 인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사회과 지리와 역사 영역의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내용을 고찰했다.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독도인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일부 초등학교 1~2학년은 2024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경험했다. 초등학교 사회는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했다. 중학교 사회는 영역으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관련 장소에서 다양하게 체험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를 보였는데, 그것은 공간적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여 영역 갈등의 심화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기술되었다.

초중고생들의 독도인식 경향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요약된다. 과거의 독도인식은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시절부터 다양한 수업과 활동, 뉴스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었다. 모든 학생들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독도를 처음 인상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10% 정도 나왔다.

현재의 독도인식으로 독도리의 행정구역을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중등학교 시절에 크게 증가했으며,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이점은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지도에서 자신들의 거주지 위치보다 독도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독도를 구성하는 섬의 숫자, 독도에 대한 심상 이미지의 표현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미지)은 초등학교 중학년은 섬이 많았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우리 땅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당위성, 역사적 증거, 역사성 등을 들었다.

미래의 독도인식으로 독도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정치적 마찰과 갈등, 대립, 다툼, 악감정 등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향후 독도 이슈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한일 정부의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중등학생은 한일 정부의 논의와 함께 독도 교육의 충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공통적 특성은 독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왔다.

한편 설문조사에 드러난 초중고 학생들의 독도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독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안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쟁을 전제로 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독도인식이 학생들에게 형성되지 않도록 교사 대상의 독도교원연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독도교육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독도교육은 초중등학교에 집중⁸⁾되었는데,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은 유치원에서의 독도교육을 인상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단계에 적절한 독도교재개발 및 독도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독도를 교과서 밖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은 독도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으로 교과서의 지식보다는

독도에 대한 체험과 활동이 더 인상적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도의 날에 학교 급식에 나온 독도 케이크,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등이다. 설문에 참가한 초중고생 186명 가운데 독도를 직접 탐방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6%(3명)에 불과했으며, 각 특별시·광역시·도에 하나씩 소재하는 독도체험관을 방문한 학생은 9.1%(17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 체험버스는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

- 1)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내부에는 독도의 자연, 역사적 증거 자료, 체험 및 활동 공간, 주제 영상관, 각종 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인과 학생들은 생생하게 독도를 체험할 수 있다.
- 2) 심정보(2022)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교육 논문은 1996년~2020년까지 총 103편이 발표되었다. 이들 가운데 2005년 이전은 2편(1.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2006년~2010년 13편(12.6%), 2011년~2015년 46편(44.7%), 2016년~2020년 42편(40.8%)이 나왔다.
- 3) 2025년도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2026년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2027년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 4) 2020년 4월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는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 내부는 전시 공간과 홍보 공간으로 구분된다. 전시 공간에는 독도모형을 비롯하여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독도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근거 알기, 독도신문 만들기, 체험 존으로 구성되었다. 홍보 공간에는 독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VR 영상관과 3D 영상관이 있다.
- 5) 2024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의 지하철 시청역·광화문역·안국역·잠실역과 용산전쟁기념관 내에 설치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 6)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동도와 서도가 포함된 독도전경 이미지는 초등학교 「사회 5-1」에 1개, 초등학교 「사회 6-2」에 4개, 중학교 「사회 2」에 3개, 중학교 「역사 2」에 1개,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에 2개, 고등학교 「한국지리」에 3개가 수록되어 있다.

- 7)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문장 대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8) 예컨대 동북아역사재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도 바로 알기,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지, 독도 체험 활동지, 독도 디지털교재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했지만, 유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09, 독도지리지, 푸른길.

김동환, 2013.01.03., “일본인에게 독도 누구 땅? 물었더니 70%가...”, 세계일보.

김진수·문대영·조성호·김숙·문승규·이강준·최영아·이희원·손영찬·오두환·김신정·이은주·박진민·양설·이상급, 2022, 중학교 사회2, 미래엔.

김현섭·김성천·허승환·최태성·정혜경·임지호·유창기·김수진·김동률·김경연·고은정·조선형·김관식·육진주·라연정·권수진, 2024a, 초등학교 사회 5-1, 비상교과서.

김현섭·김성천·허승환·최태성·정혜경·임지호·유창기·김수진·김동률·김경연·고은정·조선형·김관식·육진주·라연정·권수진, 2024b, 초등학교 사회 6-2, 비상교과서.

심정보, 2020, “한일 사회과 예비 교사들의 상대국 이미지와 독도 인식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1), 49-64.

심정보, 2022, “한국에서 독도교육의 연구 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91-103.

유성종·최병천·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규·이

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2022,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이병인·임승휘·이종서·이건홍·최태성·신승원·권효신·안선미·이지은·김원일·최효성·김중환, 2020, 중학교 역사2, 비상교육.

전현일·김청중·박호근, 2005.02.01., “新韓·일 협력시대를 열자 ① 서울·도쿄대생 설문조사”, 세계일보.

한철호·강승호·권나리·김기승·박지숙·임선일·조왕호·조용래, 2021,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内閣府政府広報室, 2023, 「竹島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 PDF.

深見聡, 2016, “地理教育における領土教育の重要性-大学生を対象とした領土に関する認識調査から”, 地理教育研究, 19, 1-9.

深見聡, 2018, “地理教育における領土教育の重要性(第2報)-大学生を対象とした2018年及び2016年の認識調査結果の比較考察から”, 地理教育研究, 23, 29-37.

山口幸男, 2002, 社会科地理教育論, 古今書院.

접 수 일 : 2025. 02. 07
수 정 일 : 2025. 02. 26
게재확정일 : 2025. 02. 26

교신: 심정보, 286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ktxgut@naver.com, 043-299-8367)

Correspondence: Jeongbo Shim, ktxgut@naver.com